YO-YO MA & KATHRYN STOTT

요요 마
첼로 리사이틀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Publicis EtNous

YO-YO MA & KATHRYN STOTT

요요 마
첼로 리사이틀

2021년 10월 24일 (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PM Sunday, October 24, 2021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첼로, 요요 마 Yo-Yo Ma, Cello
피아노, 캐서린 스톳 Kathryn Stott, Piano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PROGRAM

PART 1

펠릭스 멘델스존 1809-1847, Germany
Felix Mendelssohn

무언가 라장조, 작품번호 109
Songs Without Words in D Major, Op. 109

영국전통음악
Traditional

스카보로우 페어 (편곡: 스티븐 허프)
Scarborough Fair (Arr. Stephen Hough)

캐롤라인 쇼 1982-, U.S.A
Caroline Shaw

셰넌도어
Schenandoach

장 시벨리우스 1865-1957, Finland
Jean Sibelius

5개의 노래 작품번호 37, **제4번 '그것은 꿈이었나?'**
'Var det en dröm?' Op. 37, No. 4

위 곡들은 한번에 연주될 예정이니, 곡 사이 박수를 삼가바랍니다.

Pieces grouped together are to be performed without pause.

CREDIA

에르네스트 블로흐 1880-1959, Swiss
Ernest Bloch

유대인의 생애, B. 54
From Jewish Life, B. 54

기도 Prayer
기원 Supplicaiton
유대인의 노래 Jewish Song

안토닌 드보르자크 1841-1904, Czech
Antonín Dvořák

네 개의 낭만적 소품, 작품번호 75
4 Romantic Pieces, Op. 75

조금 빠르게 Allegro moderato
빠르고 장엄하게 Allegro maestoso
열정적이고 생기있게 Allegro appassionato
느리게 Larghetto

Management
Opus 3 Artists, LLC.
opus3artists.com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FENDI.COM

FENDI

ROMA

PROGRAM

PART 2

에롤린 월렌 1958-, England
Errollyn Wallen

데르비시
Dervish

케사 카마르고 마리아노 1943-, Brazil
César Camargo Mariano

비올레타 파라 1917-1967, Chile
Violeta Parra

아스토르 피아졸라 1921-1992, Argentina
Astor Piazzolla

크리스탈 (편곡: 조르지 칼란드렐리)
Cristal (Arr. Jorge Calandrelli)

삶에 감사해요 (편곡: 조르지 칼란드렐리)
Gracias a la vida (Arr. Jorge Calandrelli)

리베르탱고 (편곡: 캐서린 스톳)
Libertango (Arr. Kathryn Stott)

솔레다드 (고독)
Soledad

르 그랑 탱고 (위대한 탱고)
Le Grand Tango

CREDIA

위 곡들은 한번에 연주될 예정이니, 곡 사이 박수를 삼가바랍니다.

Pieces grouped together are to be performed without pause.

Management
Opus 3 Artists, LLC.
opus3artists.com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SONY CLASSICAL

요요 마 & 캐서린 스톳

YO-YO MA & KATHRYN STOTT

SONGS OF COMFORT & HOPE

#songsofcomf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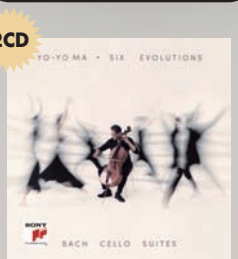
첼로로 부르는 위안과 희망의 노래

영화 음악 '오버 더 레인보우', 미국 민요 '셰넌도어',
가곡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첼로와 피아노로
아름답게 들려주는 명반!

Also Available

Impressions



Six Evolution

Songs from the Arc of Life

"지금 바로 팔로우!"

SONY CLASSICAL

좋아하는 소니 클래시컬 아티스트의 신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인스타그램에서 @sonyclassicalkorea 를 팔로우 하세요

펠릭스 멘델스존 **무언가 라장조, 작품번호 109**
Felix Mendelssohn Songs Without Words in D Major, Op. 109

말이 다 하지 못하는 낭만적 감정을 악기가 노래하는 멘델스존의 '무언가'는 낭만주의 음악의 이상을 풀어낸 가장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 중 하나이다. 19세기를 빛낸 위대한 첼리스트이자 멘델스존과 개인적 교분을 나눴던 알프레도 피아티를 필두로 많은 첼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무언가>를 편곡해서 즐겨 연주했는데, 악곡의 내밀한 정서와 우아함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은 채 특유의 깊은 맛이 더해졌다.

영국전통음악 **스카보로우 페어**
Traditional Scarborough Fair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로 유명한 '스카보로우 페어'는 오래전부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불리는 민요로, 그 출발은 늦어도 16-17세기, 어쩌면 가사 일부는 중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요정과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발라드에서 출발해서 다양한 가사와 선율로 불렸는데, 현재 널리 알려진 형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노래가 널리 유행하면서 모습을 갖춘 것 같다. 옛 도리아 선법으로 노래하는 선율은 어딘가 신비로운 매력이 있으며, 스티븐 허프의 편곡에도 잘 살아있다.

CREDIA

캐롤라인 쇼 **셰넌도어**
Caroline Shaw Schenandoach

'셰넌도어', 혹은 '오 셰넌도어'는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 민요 중 하나로 작사가와 작곡가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 같다. 오랫동안 미시시피강을 오르내리는 모험가와 상인, 선원과 나무꾼들이 부르면서 미국과 영국, 전 세계로 퍼졌고 다양한 제목과 가사로 알려졌다. '셰넌도어'는 본래 아메리칸 원주민 족장의 이름이지만 미주리 강의 지류 이름이기도 하고 또 계곡 이름이기도 한데, 노래에서는 주로 강을 가리키지만 버전에 따라 원주민 족장과 그 딸의 이야기를 포함하기도 한다. 20세기부터 여러 가수가 녹음했고, 또 퍼시 그레인저 등 많은 작곡가들이 편곡했다. 미국의 젊은 음악가 캐롤라인 쇼는 조용하게 시작해서 서서히 열기가 번지는 독특한 편곡을 들려준다.

장 시벨리우스 **5개의 노래 작품번호 37, 제4번 '그것은 꿈이었나?'**
Jean Sibelius 'Var det en dröm?' Op. 37, No. 4

100여 편이 넘는 시벨리우스의 가곡은 가곡 레퍼토리의 '잊힌 영웅'이라고 할만한데, 좀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가사가 대부분 스웨덴어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어로 '로만스(romans)'라 불리는 이 노래들은 대부분 작곡가의 초중기작으로, 간소한 수법을 통해 깊은 감정과 섬세한 분위기를 표출할 줄 아는 그의 역량이 잘 드러난다. '그것은 꿈이었나?'는 1904년작으로, '흑장미(Svarta rosor)'와 더불어 가장 널리 알려진 노래로 꼽힌다. 베크셀(Josef Julius Wecksell)의 시는 잃어버린 사랑을 추억하며, 그리움이 담긴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노래다.

에르네스트 블로흐
Ernest Bloch

유대인의 생애, B.54
From Jewish Life, B.54

기도 Prayer
기원 Supplicaiton
유대인의 노래 Jewish Song

스위스 작곡가 에르네스트 블로흐는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자신의 뿌리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깊이 탐구한 작품을 많이 썼다. 그는 이에 대해서 '나 자신이나 내 부모님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유대의 영혼을 가장 잘 '말하는' 악기는 첼로였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작은 1915년작 <셸로모>와 1924년작 <유대인의 생애>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유대인의 생애>는 세 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졌다. 음악 구조는 단순한 편이지만 동유럽 유대인(Ashkenazi) 음악 특유의 조성적인 분위기에 첼로의 표현과 기술적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구성이 돋보인다. 세도막 형식으로 이루어진 첫 곡 '기도'는 전곡 중 가장 유명해서 단독으로도 흔히 들을 수 있다. 첼로가 강렬하면서도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주제 선율을 제시하면 피아노가 뒤따르며, 마지막에는 탄원하듯, 읊조리듯 마무리된다. 두 번째 곡인 '기원'은 하나의 주제가 계속 변하며 진행되는데 하시드 춤곡 풍의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마지막 '유대인의 노래'는 애상적인 음악으로, 같은 주제가 되풀이되면서 장엄하게 진행되며 클라이맥스에 도달한 이후 조용히 끝난다.

CREDIA

안토닌 드보르자크
Antonín Dvořák

네 개의 낭만적 소품, 작품번호 75
4 Romantic Pieces, Op. 75

드보르자크의 음악에는 뭐라 표현하기 힘든 소박한 우수, 혹은 향수가 담겨있다. 이런 독특한 정서는 귀족적인 쇼팽이나 차이콥스키와는 또 다른 것으로, 그만의 매력이라고 할 만하다. 게다가 그 자신이 비올라 연주자였기에 실내악곡에는 현악기와 현악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각이 돋보인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네 개의 낭만적 소품>이다. 드보르자크는 이 작품을 가리켜 '소품을 쓰는 일이 대규모 교향곡을 쓰는 것만큼이나 즐겁다'고 말했다는데, 그런 표현이 딱 들어맞는 사랑스러운 작품이다.

작품의 원곡은 현악 트리오(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바가텔로, 아마추어 연주자인 이웃과 어울려 함께 연주하려고 만든 곡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어렵거나 난해한 부분이 없으며, 이런 단순한 아름다움은 1887년에 바이올린-피아노 편성으로 편곡된 후에도 작품의 핵심으로 남았다. 본래 네 악장의 제목은 각각 '카바티나', '카프리치오', '로만차', '엘레지아'였지만 편곡 과정에서 모두 없어졌다. 바이올린(혹은 첼로)이 노래하는 선율은 드보르자크답게 우아하면서도 서정미가 가득한데, 첫 곡의 첫 선율처럼 어딘가 명상적인 느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활기찬 두 번째 곡은 농민들의 춤곡을 떠올리게 하며, 악상 기호(Allegro appassionato)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낭만적인 세 번째 곡을 지나면 피아노의 아르페지오 화성 위에서 바이올린이 흐느끼듯 애상적인 선율을 노래하는 마지막 곡으로 마무리된다.

에롤린 월렌 **데르비시**
Errollyn Wallen Dervish

에롤린 월렌(Errollyn Wallen)은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로, 아방가르드 클래식 음악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하나로 엮은 음악을 만들고, 연주한다. '나는 음악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나에게는 경계가 없다'는 그녀의 말이야말로 정체성을 잘 드러낸 말이다. 2001년에 작곡한 '데르비시'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다. '데르비시'는 이슬람교 전통에서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하는 신비주의자들, 혹은 그들이 종교의식 때 추는 빠른 춤을 의미하며, 이 음악은 황홀경에 완전히 몰입한 종교적 열기를 묘사한다.

케사 카마르고 마리아노 **크리스탈**
César Camargo Mariano Cristal

케사 카마르고 마리아노(César Camargo Mariano)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작곡가, 프로듀서이다. 그의 음악은 재즈를 바탕으로 삼바,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흡수했는데, 요요 마와도 오랫동안 함께 연주했으며 함께 녹음 작업도 했다. 1994년에 발표된 '크리스탈'은 짧지만 매력적인 작품으로, 특유의 산뜻하고 경쾌한 스윙감이 인상적이다.

비올레타 파라 **삶에 감사해요**
Violeta Parra Gracias a la vida

칠레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비올레타 파라(Violeta Parra)의 노래 '삶에 감사해요'는 메르세데스 소사(Mercedes Sosa)와 조안 바에즈(Joan Baez)를 비롯한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고전이다. 비올레타 파라는 1960-70년대, 민요와 전통 음악에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접목한 '누에바 칸시온 칠레나(Nueva Canción Chilena)'의 대표적인 가수였다. 이 노래는 그녀가 1967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 1년 전에 나왔는데, '휴머니스트 찬가'로 해석하든, 혹은 삶에 대한 고별로 해석하든, 그 매력은 변함이 없다.

아스토르 피아졸라
Astor Piazzolla

리베르탱고 Libertango
솔레다드 (고독) Soledad
르 그랑 탱고 (위대한 탱고) Le Grand Tango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탱고 누에보(tango nuevo)'라는 이름을 앞세워 아르헨티나의 선술집에서 울려 퍼지던 전통적인 탱고 음악을 진지한 예술로 끌어올렸다. 마치 바로크 시대에 본래 서민들의 춤곡이었던 폴리아나 샤콘이 우아하고 심오한 작품이 되었듯이, 탱고는 피아졸라의 손에서 유럽 고전음악과 재즈 음악의 요소를 받아들여 육체를 위한 춤곡의 굴레를 벗어던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아졸라의 새로운 탱고는 아르헨티나 음악가들로부터 전통의 파괴자라는 모진 비난을 들었지만, 결국 60년대 이후 사그라들던 탱고는 피아졸라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 이탈리아로 이주한 직후인 1974년에 만들어진 '리베르탱고'는 아마 작곡가의 모든 작품 중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다. '자유(Libertad)'와 '탱고(Tango)'라는 두 단어를 결합한 제목답게 춤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자유를 얻은 탱고를 암시하는 활기찬 작품이다. 작곡가는 이 작품을 가리켜 '내 (밴드의) 음악가들에게 허용된 자유를 상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스페인어로 고독을 뜻하는 '솔레다드'는 <실포와 온디나(Silfo y Ondina)>의 가운데 악장으로, 1969년 아르헨티나의 안무가 오스카 아라이즈(Oscar Arraiz)를 위해서 쓴 발레 모음곡이다. 전통적인 탱고에 푸가와 소나타 형식을 결합한 독특한 작품으로, 느린 '솔레다드'는 전체 작품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아름답고 감상적이면서도 어딘가 품격이 느껴지는데, 본래는 5중주(바이올린-일렉 기타-반도네온-피아노-더블베이스) 편성이지만 다른 많은 작품처럼 다양한 편성으로 연주된다.

1982년에 나온 '르 그랑 탱고'는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고 또 그에게 헌정되었다. 하지만 악보를 처음 받았을 당시 로스트로포비치는 피아졸라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이나 악보를 서랍에 넣어두고 살펴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로스트로포비치는 8년 후인 1990년에야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날아가 작곡가를 만난 후에 이 곡을 연주했다. '르 그랑 탱고'는 피아졸라의 수많은 작품 중 아마도 탱고 형식과 클래식 음악의 혼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걸작으로, 작곡가 피아졸라가 '새로운 탱고'를 통해 도달한 최후의 영역이 아닐까 싶다. 전 곡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격렬한 분위기 속에서 탱고의 활력이 솟구치는 1부, 깊은 감정이 돋보이는 2부, 복잡한 리듬과 신랄한 반음계와 더불어 감동적인 선율이 나란히 흐르는 3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민적인 춤곡인 탱고를 새로운 차원의 예술 장르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피아졸라는 전통적인 춤곡을 모음곡이라는 형식으로 새롭게 다듬어냈던 바로크 시대 대가들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작곡가는 이 작품을 가리켜 '한 악장에 탱고의 세 가지 다른 분위기를 담아낸 모음곡'이라고 평한 바 있다.

글 |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BIOGRAPHY

© JASON BELL

요요 마, 첼리스트

YO-YO MA, Cellist

요요 마의 다방면의 커리어는 신뢰와 이해를 만들어내는 문화의 힘에 대한 그의 오랜 믿음을 증명해 준다. 그는 새로운 첼로 곡이나 익숙한 레퍼토리를 공연하며, 공동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에서 문화의 역할을 탐구하고 새로운 음악 형식에 참여하면서, 인류애를 강화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8년 8월, 요요 마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문화유산과 평화와 이해를 품고있는 전 세계 36개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 전곡을 연주하는 새로운 여정인 바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흐 프로젝트는 음악이 나누고 표현하는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문화가 어떻게 더 건강한 사회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에 대한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음악을 탐구하며 장르와 전통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요요 마의 일생의 헌신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요요 마의 음악에 대한 이런 신념은 전통과 어우러진 음악을 만드는 전 세계 아티스트들의 모임인 '실크로드'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요요 마는 '실크로드'와의 작업 외에도 그의 커리어 내내 덜 알려진 20세기 작품들, 새로운 첼로 협주곡과 독주곡들을 자주 연주하며 첼로 레퍼토리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오스발도 골리호브, 리온 커크너, 자오린, 크리스토퍼 라우즈, 에사 페카 살로넨, 지오반니 솔리마, 브라이트 셍, 탄둔, 존 윌리엄스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초연하였다.

요요 마는 음악가로서의 작업 외에도 시카고부터 광저우에 이르는 지역 사회 및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 하나 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가 담당한 여러 역할들 중 요요 마는 유엔 평화 사절로서, 세계 경제 포럼 이사회에 임명된 최초의 아티스트이며, 전 세계 원주민들과 원주민 운동과 연대하여 일하는 비영리 단체인 니아 테로(Nia Tero)의 이사회 멤버이다.

또한, 18개의 그래미 상을 포함하여 요요 마가 발매한 100 개가 넘는 음반들은 그의 광범위한 관심분야를 반영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에서 보여준 그의 아이코닉한 연주 외에도, 마크 오코너와 에드가 마이어와 함께 작업한 <애팔래치아 왈츠> <애팔래치아 여행>과, 브라질 음악을 연주하여 2번의 그래미 상을 받은 <오브리가도 브라질 > <오브리가도 브라질 – 라이브 콘서트>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요요 마의 근래 앨범으로는 2016년 그래미 상 최우수 월드 뮤직 부문을 수상한 실크로드 앙상블과 발매한 <싱 미 홈 Sing Me Home>, 에드가 메이어와 크리스 틸레와 함께 한 <바흐 트리오>, 엠마누엘 엑스,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와 호흡을 맞춘 <브람스: 피아노 트리오> 그리고 <6개의 진화: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 스튜어트 던컨, 에드가 마이어, 크리스 틸레와 함께 연주한 <Not Our First Goat Rodeo>가 있다. 가장 최근 앨범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서 피아니스트 캐서린 스톳과 함께 제작하고 녹음한 <위안과 희망의 노래 Songs of Comfort and Hope>가 있다.

요요 마는 1955년,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4살 때 아버지에게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이후 뉴욕으로 이주하여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레너드 로즈를 사사하였다. 그는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수학 후, 하버드 대학교 인류학과를 1976년 졸업하였다. 또한 요요 마는 수많은 상을 수상했는데, 에이버리 피셔상(1978년), 글렌 굴드 상(1999년), 국가예술훈장(2001년), 댄 데이비드 상(2006년), 세계경제포럼의 크리스탈 상(2008년), 미국 대통령 자유의 메달(2010년)을 수상하였고, 케네디센터 공연예술 평생공로상(2011년), 폴라 음악 상(2012년), J. 폴 게티 메달(2016년)을 수상했다. 요요 마는 그동안 9명의 미국 대통령에게 초대받아 연주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주한 바 있다.

요요 마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현재 1733년 베니스에서 제작된 몬타냐나 첼로와 1712년산 다비도프 스트라디바리우스, 2003년 Moes & Moes가 만든 현대 첼로까지, 총 3개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Yo-Yo Ma's multi-faceted career is testament to his enduring belief in culture's power to generate trust and understanding. Whether performing new or familiar works from the cello repertoire, collaborating with communities and institutions to explore culture's role in society, or engaging unexpected musical forms, Yo-Yo strives to foster connections that stimulate the imagination and reinforce our humanity.

In August 2018, Yo-Yo began a new journey, setting out to perform Johann Sebastian Bach's six suites for solo cello in one sitting in 36 locations around the world, iconic venues that encompass our cultural heritage, our current creativity, and the challenges of peace and understanding that will shape our future.

The Bach Project continues Yo-Yo's lifelong commitment to stretching the boundaries of genre and tradition to explore music as a means not only to share and express meaning, but also as his contribution to a conversation about how culture can help us to imagine and build a stronger society and a better future.

It was this belief that inspired Yo-Yo to establish Silkroad, a collective of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who create music that engages their many traditions. Through his work with Silkroad, as well as throughout his career, Yo-Yo Ma has sought to expand the classical cello repertoire, frequently performing lesser-known music of the 20th century and commissions of new concertos and recital pieces. He has premiered works by a diverse group of composers, among them Osvaldo Golijov, Leon Kirchner, Zhao Lin, Christopher Rouse, Esa-Pekka Salonen, Giovanni Sollima, Bright Sheng, Tan Dun, and John Williams.

In addition to his work as a performing artist, Yo-Yo partners with communities and institutions from Chicago to Guangzhou to develop programs that champion culture's power to transform lives and forge a more connected world. Among his many roles, Yo-Yo is as a UN Messenger of Peace, the first artist ever appointed to the World Economic Forum's board of trustees, and a member of the board of Nia Tero, the US-based nonprofit working in solidarity with Indigenous peoples and movements worldwide.

Yo-Yo's discography of over 100 albums (including 18 Grammy Award winners) reflects his wide-ranging interests. In addition to his many iconic renditions of the Western classical canon, he has made several recordings that defy categorization, among them "Appalachia Waltz" and "Appalachian Journey" with Mark O'Connor and Edgar Meyer, and two Grammy-winning tributes to the music of Brazil, "Obrigado Brazil" and "Obrigado Brazil — Live in Concert." Yo-Yo's recent recordings include: "Sing Me Home," with the Silkroad Ensemble, which won the 2016 Grammy for Best World Music Album; "Brahms: The Piano Trios," with Emanuel Ax and Leonidas Kavakos; "Six Evolutions — Bach: Cello Suites;" and "Not Our First Goat Rodeo," with Stuart Duncan, Edgar Meyer, and Chris Thile. Yo-Yo's latest album is "Songs of Comfort and Hope," created and recorded with pianist Kathryn Stott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Yo-Yo was born in 1955 to Chinese parents living in Paris. He began to study the cello with his father at age four and three years later moved with his family to New York City, where he continued his cello studies with Leonard Rose at the Juilliard School. After his conservatory training, he sought out a liberal arts education, graduating from Harvard in 1976. He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including the Avery Fisher Prize (1978), the Glenn Gould Prize (1999), the National Medal of the Arts (2001), the Dan David Prize (2006), the World Economic Forum's Crystal Award (2008), the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2010), Kennedy Center Honors (2011), the Polar Music Prize (2012), and the J. Paul Getty Medal Award (2016). He has performed for nine American presidents, most recently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Biden's inauguration.

Yo-Yo and his wife have two children. He plays three instruments, a 2003 instrument made by Moes & Moes, a 1733 Montagnana cello from Venice, and the 1712 Davidoff Stradivarius.

COSMOS
SINCE 1972

STEINWAY & SONS

SPIRIO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우리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피아노

Steinway.kr 에서 직접 확인해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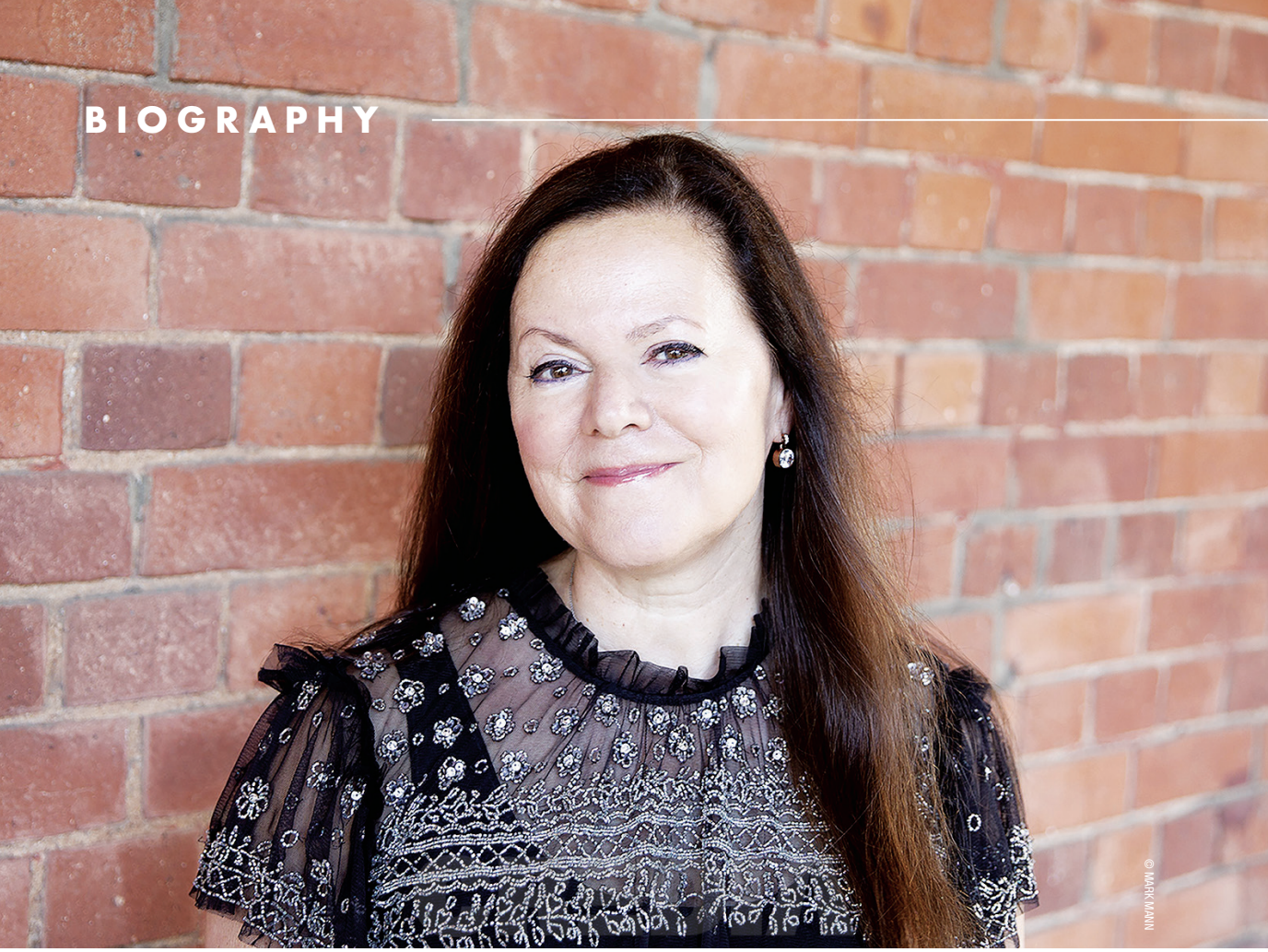
RHAPSODY IN BLUE ECSTATIC IN PINK

언제나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명품 콘서트 - 스타인웨이 스피리오.

iPAD와 연동하여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의 곡을 무료로 얼마든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주) 코스모스악기
스타인웨이 갤러리 서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5 TEL (02)3468-0012
자세한 정보는 STEINWAY.KR 을 방문하세요.

STEINWAY & SONS



캐서린 스톳, 피아니스트

캐서린 스톳은 다섯 살 때 거실에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와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음악 여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8살 때 음악영재들이 수학하는 예후디 메뉴인 음악학교에 입학한 캐서린 스톳은 나디아 불랑제와 블라도 페를르뮈테르를 사사하며, 프랑스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특히 포레는 그녀가 애정을 갖고 있는 작곡가이다.

캐서린 스톳은 런던에 있는 왕립음악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전문 연주자의 길로 들어선다. 캐서린은 이 시기가 가장 급격한 시행착오와 변화를 겪었던 시기라고 말한다. 3년 후, 그녀는 다른 음악가들과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어릴적부터 그녀의 음악인생에서 주요한 부분이었던 실내악 연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KATHRYN STOTT, Pianist

1978년 시작된 요요 마와의 인연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다. 1985년부터 캐서린 스톳과 요요 마는 전 세계 무대에서 함께 연주해오고 있으며, 여러 개성 있는 음악가들과 음악적 모험을 이끌어왔다. 캐서린과 요요 마는 각자의 영역에서 음악 탐험가로서 활약하는 동시에, 창조적인 업무에서도 끈끈한 유대감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캐서린 스톳은 호주 실내악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으로 매년 참여해왔으며, 여러 연주자들과 함께 새로운 창의적인 도전을 즐기고 있다. 캐서린 스톳은 1995년부터 음악 큐

레이션과 연출에 대한 애정을 쏟아왔고, 주말부터 2주 동안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 그녀의 여러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반영시켰다. 그녀는 새로운 음악을 탐구하며, 색다른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

캐서린 스톳은 BBC 프롬스에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관객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도, 학교에서 20명의 활기찬 어린 학생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도 똑같이 즐거움을 느낀다. 그녀는 젊은 음악가들과 일하는 것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오슬로에 있는 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캐서린 스톳은 작곡가 그레이엄 핏킨과 협업하였으며, 핏킨은 그녀를 위한 곡을 작곡하기도 했다.

캐서린 스톳은 경계가 없는 언어인 음악에 몰두하며, 그 음악 이야기를 전 세계에서 나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말한다. 작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그녀를 이처럼 멋진 길로 이끈 것이다. 캐서린 스톳은 네팔, 코스타리카, 부탄에서 트래킹을 했으며, 요크셔 무어스에서 그녀의 반려견 아치와 산책하는 것을 즐긴다. 그녀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At the age of five, I made friends with the upright piano in our living room.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musical journey, one which continues as you read this. It would appear that my initial progress was rapid and by the age of eight, I found myself at a boarding school for young musicians, the Yehudi Menuhin School. During my studies there, it's now clear to me that I was heavily influenced by two occasional visitors to the school; Nadia Boulanger and Vlado Perlmuter. From them, my great passion for French music was ignited and Fauré in particular has remained the musical love of my life.

Further studies at the Royal College of Music in London then led me very abruptly into the life of a professional musician via the Leeds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t remains the steepest learning curve I've ever experienced. After a rollercoaster three years, I realised that I needed to re-connect with chamber music in a bid to feel more connected to other musicians and after all, this had played an important part of my musical existence since being a child.

When, quite by chance, I met Yo-Yo Ma in 1978, it turned out to be one of the most fortuitous moments of my life. Since 1985, we have enjoyed a collaboration which has taken us to so many fascinating parts of the world and led to musical adventures with musicians who shared so much from their own traditions. I've always considered us to be intrepid musical explorers on our own individual paths but with an incredible bond that unites us on the creative highway.

Presently, I enjoy the challenge of creativity in a different way by bringing many musicians together once a year in my role as Artistic Director of the Australian Festival of Chamber Music. My love of curating and directing began in 1995 and since then I've brought to life many of my ideas in events lasting anything from long weekends to two weeks. I continue to push my capacity for exploring music I know nothing about and love bringing together unusual combinations whenever possible.

There are too many highlights in my career to mention. Yes, it was a thrill to perform at the Last Night of the Proms to millions around the world, but equally a massive thrill to have lit up twenty small faces in an inner city school while they jumped up and down to energetic piano music! Working with young musicians is something I feel passionate about and presently teach at the Academy of Music in Oslo. I've also had some truly exciting music written for me and enjoyed a particularly close collaboration with composer Graham Fitkin.

What an unbelievable privilege it is to be immersed in a language which has no boundaries and has allowed me to share musical stories on a global scale; that little upright piano set me on quite a path! Talking of paths - I've also been found trekking in Nepal, Costa Rica, Bhutan or walking my spaniel Archie on the Yorkshire Moors. The journey continues.

© MARK MANN

요요 마가 첼로로 부르는 위안과 희망의 노래

바이올린 족 악기 가운데 비교적 출발이 늦었고 주로 콘티누오 악기에 쓰였던 첼로는 바로크 후반 비발디와 보케리니 같은 작곡가들이 뛰어난 작품을 쓰면서 조금씩 독주 악기로 떠올랐다. 그 후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피아티Alfredo Piatti, 세르베Adrien-François Servais, 프랑숌Auguste Franchomme 같은 명인들이 등장했고, 20세기 초에 파블로 카잘스Pablo Casals가 등장하면서 바이올린에 뒤지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위상을 얻었다. 카잘스의 뒤를 이어 마레샬Maurice Maréchal과 푸르니에Pierre Fournier를 시작으로 프랑스 연주자들이 나타났고 러시아에서는 피아티고르스키Gregor Piatigorsky와 크누세비츠키Sviatoslav Knushevitsky, 로스트로포비치Mstislav Rostropovich가, 헝가리에서는 야노스 슈타커János Starker가 모습을 드러냈다.

20세기 후반에도 미샤 마이스키부터 이설리스와 케라스까지, 많은 명연주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연주 경력, 폭넓은 레퍼토리, 진지한 예술적 도전,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적 실험과 노년에도 변함없는 열린 자세 등 모든 면을 고려할 때 로스트로포비치 이후 가장 뛰어난 첼리스트는 요요 마라고 생각한다. 음악 학자이자 시대악기 연주자인 로렌스 드레이퍼스가 증언했듯이 '이미 레너드 로즈Leonard Rose 교수 문하에서 공부했을 때부터 스타였던' 요요 마는 탁월한 비르투오소로서 얻은 세계적 명성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 세계에 도전해서 새로운 벽을 세우고 또 부수는 작업을 계속했다. 바비 맥퍼린과 만든 '허쉬Hush' 앨범(1992)으로 크로스오버의 고전을 만드는가 하면 거트현과 바로크활로 무장한 바로크 첼로로 톤 코프만과 함께 보케리니와 하이든에 도전해서 멋진 성공을 거두었으며, 탱고와 민속 음악을 연주하는가 하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동서양 음악가들과 협력해서 장르를 초월하는 예술적 협력을 이루기도 했다.

세 차례에 걸쳐 녹음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녹음은 요요 마의 위대한 음악 여정을 잘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다. 낭만적이고 직선적인 해석을 들려주며 연주자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린 첫 녹음(1983), 보다 산뜻한 해석에 역사주의 해석도 일부 가미하면서 곡마다 다양한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한 영상물로 색다른 접근 방법을 취했던 두 번째 녹음(1998), 그리고 더욱 자유롭고 가벼워졌으며 마치 듣는 이에게 말을 거는 듯한 수사학적인 해석과 다채롭고 미묘한 음색으로 감동을 준 세 번째 녹음(2018) 모두가 각자 다른 해석을 지향했고 또 모두가 예술적으로 성공했으며, 무엇보다도 예술적으로 계속 성장했다는 점은 정말 놀랍다. 한때 '나는 즉흥연주에 능숙하지 못하다. 하지만 매번 즉흥연주를 할 때마다 나는 더 나은 음악가가 된다'고 했던 요요 마는 자신의 말을 실제 연주로 입증했다.

그리고 '클래식 연주자'로서의 요요 마는 1996년 '애팔래치아 왈츠' 프로젝트와 1998년 '실크 로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크게 변했다. 이전에도 이런 컨셉의 음악적 시도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만한 규모와 이만한 기간, 그리고 이 정도로 진지한 시도는 매우 드물다. 마흔 명이 넘는 동서양 음악과들과 함께 작업하는 방대한 작업을 통해서 요요 마는 다른 문화와 음악을 발견한 것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재발견했던 것 같다. 그 자신이 말한 대로, 몽고 악기인 마두금morin khuur를 연주하면서 현악기의 뿌리, 역사주의 양식을 넘어선 근본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고나 할까. 사실 요요 마라는 음악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이것은 단지 그의 예술적인 역량과 안목에 그치지 않는다. 음반과 책,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이어진 대규모 기획은 요요 마라는 거대한 아티스트가 지닌 위상 없이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다시 첼로로 돌아온 요요 마는 코로나19 시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내밀하고 차분한 음악을 들려준다.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많은 예술가들의 삶에 큰 시련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전을 자극한 기회이기도 했다. 제임스 에네스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는 바흐와 이자이의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들을 새롭게 녹음했고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이트는 피아노 편곡 앨범을 직접 기획하고 녹음했으며, 이고르 레빗은 집에서 진행한 마라톤 콘서트를 기반으로 주제별로 나눈 의미 있는 앨범을 발표하고 있다. 요요 마 역시 봉쇄 조치가 취해진 직후부터 #songsofcomfort 라는 해시태그로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었다. 요요 마와 캐서린 스톳의 새 앨범과 연주회는 이 시리즈의 완성판, 혹은 축약판인 동시에 요요 마의 긴 연주 경력을 낱낱이 드러내는 무대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멘델스존이나 라흐마니노프 같은 낭만주의 작곡가부터 여러 나라의 민요와 민속 음악, 영화 음악과 뮤지컬 넘버, 팝 음악, 피아졸라의 탱고가 모두 담겨 있다. 마크 오코너Mark O'Connor와 함께 미국 민요를 꾸준히 탐구했던 시간이 없었다면 요요 마가 '셰넌도어'나 '스카보로우 페어'를 이토록 애상적으로 연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드보르자크 '네 개의 낭만적 소품' 같은 곡에는 첼로로 노래할 줄 아는 대가의 역량이 담겨 있다. 흔히 위대한 연주자의 솜씨는 소품집에서 드러난다고 하지 않던가.

요요 마는 언젠가 인터뷰에서 '음악은 생각을 표현하는 자유로움과 이를 실행하는 매커니즘'이라고 정의하면서 모든 연주는 그런 '자유와 구조를 결합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이번 연주회는 요요 마와 캐서린 스톳이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살며시 전해주는, 음악이 주는 자유로움에 대한 찬가이다.

글 |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Songs of Comfort and Hope> 앨범 라이너 글 전제

CREDIA
MUSIC&ARTISTS

워너클래식이 선택한 **완벽하고 짜릿한** 사운드

DUO

문태국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베토벤 모차르트 '마술피리' 중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 주제에 의한 7개 변주곡, WoO 46

멘델스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D장조, Op.58 | **라흐마니노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Op.19

2021.11.30 TUE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WARNER CLASSICS
티켓 R석 8만원 | S석 6만원 | A석 4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요요 마 인터뷰

지난해 미국이 록다운에 들어간 후 집에서 연주한 영상을 SNS에 올리고, 사람들에게#songsofcomfort 해시태그와 함께 음악을 공유하라고 독려하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때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사무실에 모여 있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한 명이 "음, 우리는 위로의 음악을 할 수 있죠"라고 불쑥 꺼낸 말에, 저는 "좋아요. 첼로가 여기 있으니, 일단 앉아 봅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누가 음악가를 필요로 할까?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음악의 목적은 무엇일까? 위로가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었지요.

저의 영웅 중 한 분인 레너드 번스타인은 케네디 대통령이 살해됐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폭력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음악을 더 강렬하고, 아름답고, 헌신적으로 만드는 것 말입니다"

저는 문화가 진실, 신뢰, 봉사(서비스)와 같은 가치들에 의해 움직인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리고 전 인간이 음악을 '서비스'로서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서비스'의 한 부분이 되어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세상 밖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던 음악을요. 몇 달 동안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휴식의 순간과 희망의 빛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하셨는데요, 팬데믹이 선생님의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요, 팬데믹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수십 년간 사람들과의 소통은 제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삶은 저에게 인간 본성의 끝없는 다양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주었고, 이 단절된 시기는 인간의 창조성이 가진 힘에 대한 제 신념을 더 확고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자연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행성(지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음악과 문화가 인간만이 아닌 자연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다양한 곡들을 연주합니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이 공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년 전쯤, 캐서린과 저는 어떤 곡들이 팬데믹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앨범 <Songs of Comfort and Hope>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와

목적에 관한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는 세계 각국의 음악들입니다. 우리가 녹음을 하며 앨범 라이너 노트를 쓸 때, 캐서린은 펠릭스 멘델스존의 말을 저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멘델스존은 '음악이란 추상적이며 명확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도로 명확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한국 관객분들에게도 그렇게 작용하길 바랍니다.

피아니스트 캐서린 스톳과는 1985년부터 함께 호흡을 맞추어 왔습니다. 캐서린과 연주할 때 매우 편안해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연주자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추어 올 수 있었나요? 그녀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음악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요?

저와 캐서린의 스토리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캐서린과 저는 우리가 함께 연주하기 전부터 친구였습니다. 캐서린과는 1978년 여름에 만났는데, 저에게 이 기간은 엄청난 시즌이었습니다. 5월에 에이버리 피셔 상을 받고, 뉴욕 필하모닉과의 협연 데뷔를 했으며, 아내 질과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식 다음날, 아내와 저는 정신없이 여름 음악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주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리는 새로운 (미국판) 스폴레토 음악제의 매력에 푹 빠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탈리아 스폴레토 음악제에 참가하기 위해 이탈리아 엄브리아의 그림 같은 마을을 여행했고, 8월에는 사우스 뱅크 축제를 위해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런던에서의 시간이 길어질 예정이라, 우리는 햄스테드에 있는 아파트를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몹시 더운 날이었는데 저는 거의 옷을 걸치지 않은 채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건물주가 우리에게 하우스메이트가 있다는 것, 그들에게 제가 방을 임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던 걸 알게 되었죠. 그 하우스메이트는 바로 캐서린 스톳이었고, 그것이 저희의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비좁은 공간에서 몇 주를 함께 지냈습니다. 캐서린이 리즈 피아노 콩쿠르를 위해 연습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차를 만드는 '정확한' 방법과, 랭커셔 지방의 다채로운 단어들, 그리고 북쪽 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직과 솔직함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잘 맞았고, 감사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우정은 나의 음악적 목소리를 바꿔주는 파트너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과 저는 수많은 모험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중 한 여행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아메리카 음악과의 만남,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음악은 음악가로서의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만남은 문화가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어떻게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Design your *Life*

일상에 예술을 더하는 다양한 경험
클럽발코니와 함께하세요

FRIENDS
무료회원
가입비 : 무료

예매수수료 없이 예매
각종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FOC 제휴처 혜택 제공

SMART
일반회원
가입비 : 3만원
유효기간 : 1년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 우송 (연 4회)
크레디아/ 파트너스 기획공연 5~30% 할인
크레디아 기획공연 티켓오픈 SMS
단독 선예매,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북 제공

CIELOS Club
후원회원
가입비 : 200만원
유효기간 : 10년

SMART 회원 혜택 기본 제공
연간 4회 이상의 프라이빗 행사 초대
공연 패키지 30~50% 할인 구매좌석 우위
씨엘로스 투어 상품 선예매

CREDIA

클럽발코니 유료회원 혜택

· **공연할인 5~30%**
크레디아 및 파트너사 공연예매 시
(공연별 최대 4매)

· **티켓오픈 SMS**
티켓오픈 알림 SMS/ 단독 선예매
(크레디아 기획공연 예매 시)

· **수수료 면제**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면제
렉처, 공연, 영화 등 이벤트 참여

· **매거진, 프로그램북 제공**
클럽발코니 매거진 무료배송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 증정

· **FOC 제휴 할인**
클럽발코니 제휴 파트너사 할인혜택 제공

Club **BALCONY** | 회원가입 문의 1577-5266 www.clubbalcony.com @club_balcony_official

랜드로버 공식딜러 **효성프리미어모터스**

부산 연제 전시장 051.250.1400 센텀 서비스센터 051.250.1400
법인특판센터 051.240.1092 중고차사업부 051.507.1408

울산 전시장 052.240.1400 서비스센터 052.240.1414

DEFENDER D250 SE :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2,520kg, 자동8단, 복합연비: 9.8km/ℓ (도심: 9.2km/ℓ / 고속도로: 10.7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99.0g/km

효성은 요요마(실크로드 앙상블 설립자)의 글로벌 스폰서입니다.

Heather Dewey-Hagborg, *Stranger Visions*, 2012-2013,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 Heather Dewey-Hagborg, Courtesy of Fridman Gallery, NY. Photo: Han Do Hee
George Segal, *Rush Hour*, 1983, Bronze, 183 × 244 × 244 cm. Leeum Museum of Art © The George and Helen Segal Foundation. Photo: Han Do Hee
Andy Warhol, *Forty-five Gold Marilyns*, 1979, Acrylic paint and silkscreen ink on canvas, 205 × 307 cm. Leeum Museum of Art ©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Human 7 questions

요요 마 첼로 리사이틀

CREDIA MUSIC & ARTISTS | CREDIA INTERNATIONAL | CREDIA ENTERTAINMENT | STAR WALK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유료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매한 유료회원에 한함) | www.credia.co.kr

CREDIA
MUSIC&ARTISTS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